'하이브리드카' 가속 페달

현대차 본격 진출 … 내년 국내시장 '불꽃 경쟁'

도요타·GM 등 수입차 업계도 신차 출시 '봇물'

국내 자동차시장에 '하이브리드카'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하이브리드카'는 내연 엔진과 전기 모터를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연료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크게 낮춘 친환경 차량이다.

특히 내년에는 현대차의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 등 5종 가량의 하이브리드 모델이 국내 시장에 출시된다.

정부도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세제지원에 본격 나설 예정이어서 국내 친환경차 시장이 급팽창할 전망이다.

◇**현대차 '하이브리드카' 시장 본격 진출**=현대차는 내년 7월께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출시한다.

이 차는 세계 최초로 LPG(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며, 4년간에 걸친 연구·개발 끝에 일반인에게 판매된다. 우리나라에도 미래형 자동차 시대가 본격 개막되는 것이다.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LPG 감마엔진 1,600cc가 장착되며, 15kW 모터가 적용된다. 또 무단변속기가 장착되는 등 기존 가솔린 모델에 비해 연비가 50% 가량 개선됐다.

특히 이 차량은 가격이 2천만원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여 여러모로 경제성이 높다는 게 현대차측의 설명이다.

현대차의 '하이브리드카' 개발은 지난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시작으로, '베르나 하이브리드'(2000년)와 '클릭하이브리드'(2004년) 등을 잇따라 생산했다.

또 2004년과 2005년에는 각각 '클릭 하이브리드'와 '베르나 하이브리드'를 정부에 납품하기도 했다.

아울러 현대차는 오는 2010년께 '쏘나타'와 '로체'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하이브리드카' 양산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하이브리드 모델은 일반 차량에 배터리, 모터, 전기제어기 등 부품이 추가 적용돼 초기 구입비용이 다소 비싸지만 2년 정도 운행하면 만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정부 지원 등 국내 시장 '빅뱅'**=내년부터 국내 자동차시장에는 '하이브리드카' 시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근 고유가와 세계 각국의 환경규제 등의 여파로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외 업체의 모델 출시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국내 시장의 경우 하이브리드 시장이 최대 10배 정도 팽창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취득·등록세 지원은 물론 보조금 효과를 내는 개별소비세를 인하키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 출시된 하이브리드 모델은 혼다의 '시빅 하이브리드'를 비롯, 렉서스 'RX400h', 'GS450h', 'LS600hL' 등 총 4종이다.

이들 모델은 아직까지 국내에선 세제 혜택이 없는 데다 가격도 비싼 편이어서 판매량이 '제자리'를 걷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정부의 지원이 이뤄질 경우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중적인 모델들이 대거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도요타가 혼다와 렉서스 등에 이어 내년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판하는 등 국내 시장의 공세를 높여나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수입차 업계 신차 출시 '봇물'**=수입차 중에선 도요타 '프리우스'와 혼다 '인사이트'의 싸움을 지켜볼 만하다.

'프리우스'는 전 세계 하이브리드카 시장을 석권한 모델로, 내년 10월께 국내 출시되는 차량은 연비를 대폭 개선했다. 배기량도 기존 1,500cc에서 1,800cc로 높아졌다.

도요타는 내년에 '프리우스' 외에도 중형 세단인 '캠리'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국내에 선보인다.

혼다의 '인사이트'는 '프리우스'의 대항마로, 차체가 작아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최근 선보인 1,400cc급 휘발유 엔진과 전기 모터를 얹은 2세대 하이브리드 모델이 내년 하반기께 국내에 출시된다.

푸조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하이브리드카'인 '프롤로그'를 국내에 내놓을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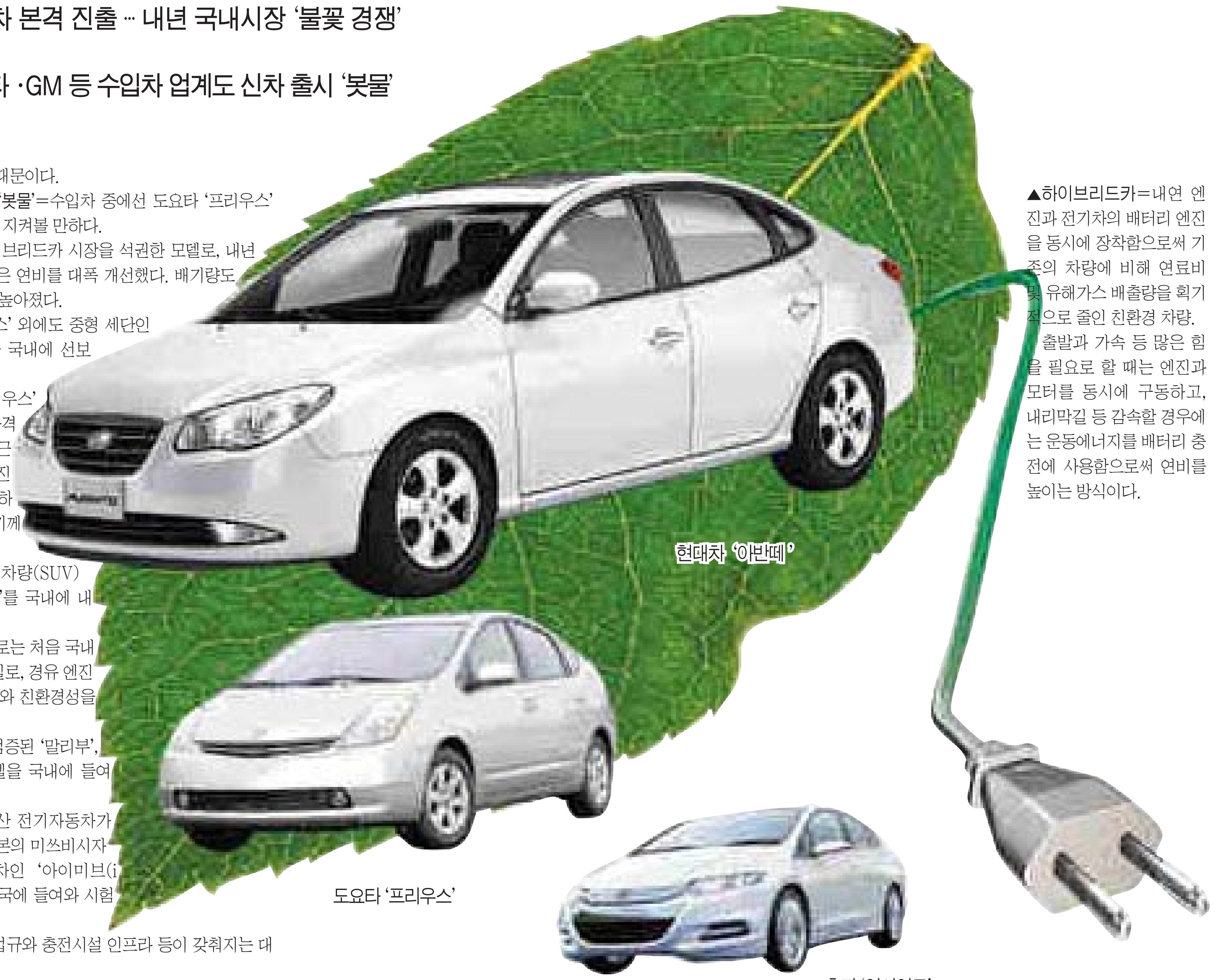
'프롤로그'는 유럽 브랜드로는 처음 국내에 선보이는 하이브리드 모델로, 경유 엔진과 전기 모터를 장착해 연비와 친환경성을 대폭 높였다.

GM은 해외에서 성능이 검증된 '말리부', '타호' 등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국내에 들여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도 내년에는 일본산 전기자동차가 국내에 선보일 예정이다. 일본의 미쓰비시자동차는 친환경 전기자동차인 '아이미브(i MiEV)'를 내년 하반기께 한국에 들여와 시험 운행할 계획이다.

미쓰비시는 한국에 관련 법규와 충전시설 인프라 등이 갖춰지는 대로 공식 판매할 예정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현대차 '아반떼'

도요타 '프리우스'

혼다 '인사이트'

▲하이브리드카=내연 엔진과 전기차의 배터리 엔진을 동시에 장착함으로써 기존의 차량에 비해 연료비 및 유해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친환경 차량.

출발과 가속 등 많은 힘을 필요로 할 때는 엔진과 모터를 동시에 구동하고, 내리막길 등 감속할 경우에는 운동에너지를 배터리 충전에 사용함으로써 연비를 높이는 방식이다.